

새한, 중국시장 교두보 확보!

섬유무역 자유화 대비 상하이법인 설립 ... 수처리 필터 기대주

새한(대표 박광엽)이 2005년 중국 섬유무역 자유화를 겨냥해 상하이법인을 설립했다.

새한은 7월24일 상하이에서 회사 관계자와 김영삼 상해영사, 중국 거래기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하이법인(새한제합무역상해유한공사)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중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새한의 상하이법인 설립은 2005년 중국 섬유무역 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천진(텐진)새한 유한공사와 청도(칭타오) 분공사와 연계해 중국시장에서 새한의 모든 제품을 총괄하는 판매본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상하이법인을 통해 원면, 원사, 직물, 필터, 시트(Sheet) 등 차별화제품 위주로 판매망을 구축하며, 특히 중국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안전한 음용수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필터부문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한은 2003년 상하이법인에서 3500만달러(약 42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2배 수준인 7000만달러(약 84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박광엽 사장은 “앞으로 상하이법인은 중국기업과 연계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새한이 쌓아온 기술력과 상품개발력, 마케팅력을 활용한 판매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기업과 함께 발전하는 Win-Win체제를 모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인경 기자>

새한 상해법인 창립기념식



<Chemical Journal 2003/07/25>